

배우 임시완 “저는 진화하고 싶어요”

넷플릭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사이코패스 살인마 ‘우준영’ 역 맡아 열연



“글쎄요.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악역을 맡으면 제 연기를 더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한 캐릭터를 더 자주 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극 중 캐릭터를 선과 악으로 나눈 뒤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게 더 좋냐고 물으니 배우 임시완(35)은 이렇게 답했다. 대중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임시완의 연기는 아마도 드라마 ‘미생’(2014)에서의 비정규직 신입사원 ‘장그래’일 것이다. 당시 그는 특유의 맑은 눈으로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하나씩 배워가는 착하고 평범한 직장인을 연기해 호평받았다. 하지만 ‘미생’에서 10년이 흐른 지금 임시완이 연기하는 인물들은 많이 달라져 있다. 최근 그는 다소 거친 캐릭터를 맡고 있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7)에서 조금 변하더니 지난해 ‘비상선언’에선 아예 악역을 맡았다. 그리고 지난 17일 나온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선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우준영’을 연기했다. 맑은 눈의 청년 임시완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맑은 눈의 광인’이 돼 있다. 그는 “악역을 맡겠다고 의도한 것도, 악역에 맞들린 것도 아니다”고 했다. 어찌됐든 임시완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작품을 맡든 대체로 긍정적이다.

“악역을 연기하는 것에 쫓긴 건 전혀 아

니예요. 선역과 악역을 돌아가면서 연기했는데, 팬데믹 등 영향으로 악역을 맡은 작품들이 한꺼번에 나온 거죠. 악역을 즐겨한다고 하긴 힘들어요. 요즘 저는 배우가 주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요. 물론 좋은 작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사회에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어요.”

사실 임시완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고사했다. 각본은 흥미로웠지만, 연기하게 될 캐릭터가 결코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선배 배우 김희원의 설득이 있었고, 이 작품의 짜임새를 볼 때 자주 만나기 어려운 영화라는 판단을 내린 끝에 결국 출연을 결심했다. “아직도 전 고민 중입니다. 답을 못 내렸어요. 악역을 연기한다는 건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래서 출연료의 일부를 기부했어요. 그렇게라도 그 무게감을 조금 낮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임시완은 이번에도 악역을 소름끼치게 소화했다. 그가 연기한 우준영은 우연히 주는 스마트폰을 해킹한 뒤 주인에게 돌려준다. 스마트폰을 장악한 그는 상대를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한다. ‘비상선언’ 때도 악역이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도 악역이지만, 그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다. ‘비상선언’에서는 스토리가 있

는 인물이었다면, 이번 영화에선 그런 것 없이 그저 장난을 치는 듯한 인물로 표현했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걸 자기만의 컬렉션을 만드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마치 자신을 아티스트로 여기는 듯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에게 부모님은 악역을 연기하는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그는 “부모님은 무조건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죠. 그래도 악역보다는 왕을 연기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임시완은 아이돌 가수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해 배우 활동을 겸하는 이들 중 가장 앞서나가는 스타로 꼽힌다. 연기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굵직한 작품에 출연한 경력만 봐도 그렇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과 ‘비상선언’으로 두 차례 칸국제영화제에 다녀온 것도 그의 큰 자산이다. 임시완은 칸에서의 경험이 그가 연기를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영화가 다 끝난 뒤에 나오던 기립 박수를 기억해요. 저에 대한 사전 정보 하나 없는 관객이 저와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고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려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반응을 얻기 위해 연기해야겠다고요. 제 연기의 기준점을 높여야 하고, 적당히 해선 안 된다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영광을 다시 누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칸에 초청받은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선 설경구, ‘비상선언’에선 이병헌 뿐만 아니라 송강호·이성민 등 임시완은 국내 최고 배우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국내 젊은 남성 연기자 중 임시완만큼 선배 복이 있는 배우도 드물다. 그는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걸 배운다고 했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기하는 걸 배우는 건 아니지만 선배 배우들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얻은 것들이 있다고 했다. 그 중 하나가 그 뛰어난 배우들도 여전히 연기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점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연구하더라고요. 제 롤 모델이요? 그 분들만큼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기본이죠. 관객은 이미 선배들의 연기를 오래 봐왔으니까, 요구하는 수준이 매우 높잖아요. 저는 제 시대에 맞는 연기를 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서 진화해야 합니다.”

임시완에게 어떻게 진화하고 싶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관객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의외의 답을 내놨다.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볼 특색 외국인이 제 연기를 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전에는 한국적인 정서만 고민했다면 이제 세계적인 정서를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그게 제 세대 연기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보이즈 ‘로어’, 국내외 차트 상위권 진입

더보이즈(THE BOYZ)가 컴백과 동시에 국내외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다.

21일 자정 더보이즈의 여덟 번째 미니 앨범 ‘비 어웨이크(BE AWAKE)’의 타이틀곡 ‘로어(ROAR)’가 멜론 최신 발매 실시간 차트 4위, 벅스 4위 등 상위권에 진입했다. 특히 멜론 톱 100, 벅스 최신 차트에는 6개 수록곡 전곡이 차트 안에 들어갔다.

또한 더보이즈의 ‘비 어웨이크’는 21일 오전 7시 기준(한국 시간)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싱가포르, 핀란드, 터키, 인도네시아 1위 등 11개국 정상과 송 차트 4개국 최상위권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힘입어 더보이즈는 20일 오후 8시,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미니 8집 발매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무대에서는 새 앨범 수록 곡인 ‘어웨이크(AWAKE)’와 타이틀곡 ‘로어’의 퍼포먼스가 최초로 공개됐다.



더보이즈는 미니 8집 수록 곡들을 직접 소개하는 것을 물론 멤버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신곡들의 작업기,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토크, 앨범 언박싱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

쇼케이스를 마치고 더보이즈는 “초심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소중하게 만든 ‘로어’ 작품을 더비(팬덤 명)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만나볼 기회가 많으니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옥주현·박은태, ‘열린음악회’ 뮤지컬 감동 재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다음달 26일까지 공연

뮤지컬 ‘베토벤(Beethoven Secret)’의 주역인 박은태와 옥주현이 KBS1 ‘열린음악회’에 출연, 뮤지컬 속 대표 곡들을 열창했다.

20일 EMK뮤지컬컴퍼니에 따르면 두 배우는 지난 19일 KBS1 열린음악회에 출연해 작품의 대표곡인 ‘매직문’, ‘사랑은 잔인해’, ‘절망이여’를 열창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뮤지컬 ‘베토벤’은 베토벤 사후 발견된 ‘불멸의 연인’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에서 출발해 그의 삶과 음악을 뮤지컬로 탄생시킨 작품이다.

옥주현은 ‘월광 소나타’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돋보이는 ‘매직문’을 선보이며 극 중 토니가

느낀 내면의 공허함을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소화했다.

박은태는 불멸의 연인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담은 ‘사랑은 잔인해’를 선보였다. ‘비창’ 소나타의 선율은 베토벤의 가창력과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마음에 묵직한 울림을 선사했다.

박은태와 옥주현은 ‘절망이여’를 함께 열창, 섬세한 감정과 안박한 가창력을 보여줬다. ‘절망이여’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2악장의 멜로디로 두 인물의 비극성을 고조시키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넘버다.

‘베토벤’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다음달 26일까지 공연된다.

제2의 ‘오징어게임’ 키운다…콘진원, 600억 콘텐츠금융제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총 600억원 규모의 ‘콘텐츠금융제도’를 추진한다.

제도는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 ▲문화콘텐츠기업보증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콘텐츠IP 보증 ▲문화산업 완성보증 ▲방송영상진흥재단 융자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융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사업 연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3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추진하는 등 경기 침체 속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각 사업별로 접수 일자가 다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부터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콘텐츠 보증제도 등 시행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300억원 규모 펀드 등 콘텐츠 투자유치 지원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는 콘텐츠의 완성 및 흥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투자기관에 추천해 투자유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뮤지컬, 웹툰, 콘서트, 음악, 이력서 등에 올린 캐릭터 분야를 새로 더해 총 10개 분야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프로젝트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K-벨류펀드(제4호 가치평가연계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목표액은 300억원으로, 지난해 출범한 제3호 펀드(122억)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가치평가 연계 투자 검토 협력을 기존 3개사에서 26개사로 확대했다.

제작비 확보를 돕기 위한 ‘투·융자 복합금융’ 상품도 확대한다. 영화·방송·공연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가치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투자와 융자를 추가 연결해주는 상품이다.

◆보증 지원하는 콘텐츠 보증제도…안정적 자금조달 주력

‘콘텐츠 보증제도’는 콘진원이 평가해 추천한 콘텐츠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한도와 보증비용, 보증료 등이 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게임·방송·음악·애니메이션·영화·공연·만화·캐릭터·출판·디지털콘텐츠 등 총 10개로, 올해부터 신기술융복합 공연·전시와 예능·드라마형 다큐·교양 등도 포함된다.

문화콘텐츠기업보증은 기획·제작·사업화 등 단계별 맞춤형 자금 유치를 지원하며, 콘텐츠IP 보증은 콘텐츠IP 라이선싱 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둘다 보증한도는 10억원 내외다. K 콘텐츠혁신성장보증은 글로벌·비대면·신기술융합 분야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자금 유치를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콘텐츠 유통·배급사와 선관매개 약을 맺은 기업이 이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지원한다. 15억원 내외 한도로, 방송과 영화 분야는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실행한 기업 중 ‘문화콘텐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는 최대 1년간 대출 금리의 2.5%p를 감면한다. 올해 이차보전 예산은 전년도의 2배인 40억원으로 편성됐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빌보드200’ 3주 톱10

시저 정규 2집 ‘SOS’ 총 9주 1위…아델 ‘25’ 이후 7년 만에



그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세대 K팝 그룹 기록을 썼다.

빌보드가 19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25일 자 차트 예고기사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이 이번 주 ‘빌보드 200’에서 10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자에서 1위로 진입한 뒤 지난 주 3위를 차지했던 해당 음반은 3주 연속 톱10 기록을 썼다.

K팝 그룹이 ‘빌보드 200’에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지만, 3주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린 4세대 K팝 그룹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

이다.

‘이름의 장: TEMPTATION’은 11일 자 ‘빌보드 200’ 차트에 1위로 진입했고, 이어 18일 자 차트에서는 3위에 랭크됐다.

전체 K팝 그룹을 통틀어도 3세대 K팝을 대표하는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BLACKPINK)’에 이어 3번째다.

2019년 방탄소년단의 미니 6집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Persona)’가 톱10에 4주 진입했다. 2020년엔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세븐(Map of the Soul: 7)’이 톱10에 3주, 블랙핑크의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이 톱10에 3주, 방탄소년단의 스페셜 앨범 ‘BE’가 톱10에 3주 연속 진입했다.

한편 2주 전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이름의 장: 템테이션’에 밀려 ‘빌보드 200’ 정상의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R&B 싱어송라이터 시저(SZA)의 정규 2집 ‘SOS’는 지난 주에 1위 자리를 복귀한 데 이어 이번 주도 1위를 지켰다. 해당 차트에서 총 9주간 정상을 차지했다. 여성 아티스트의 음반이 ‘빌보드 200’에서 9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건 2016년 영국 팝스타 아델의 정규 3집 ‘25’ 이후 약 7년 만이다.